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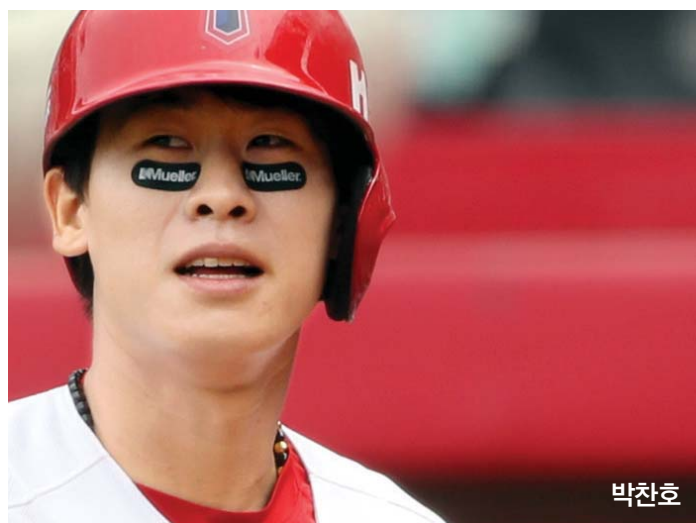
“목표는 중위권” KIA 전진 기어



최형우



김주찬



박찬호

T 타이거즈 전망대

7연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호랑이 군단'이 마운드 전력을 점검받는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17-5 대승을 거두면서 7연승 행진을 달렸다.

'최하위 싸움'으로 전개됐던 롯데전에 이어 KT전까지 싸움이었지만, 스투에서 밀리며 KIA의 자리는 여전히 9위다. 갈 길이 먼 KIA는 중위권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한 주를 보낸다.

KIA는 주중 대전으로 가 6위 한화 이글스와 원정 경기를 치른 뒤 주말에는 안방에서 4위 키움 히어로즈와 만난다.

양현종과 최형우로 대표되는 투-타의 대표 선수가 반등의 핵심이었다.

개막전 첫 등판에서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6이닝 1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던 양현종은 초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서 험겨운 불날을 보냈다.

하지만 워밍업을 끝낸 양현종의 5월은 누부셨다. 지난 2일 삼성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어렵게 시즌 첫 승에 성공한 양현종은 이후 두 경기는 7이닝 1실점으로 처리했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두 경기에서 모두 불운한 패전 투수가 됐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는 타선의 지원 속 에이스의 면모를 보이며 연승에 성공했다.

5월 한달 5경기에서 양현종은 35이닝을 4실점(3자책점)으로 막으면서 0.7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불넷은 5개로 묶였고, 탈삼진은 37개나 뽑아냈다.

投

양현종 부활에 마운드 안정감

문경찬·하준영 등 급성장

이번주 홍건희·차명진 출격

打

최형우 최근 10게임 15안타

안치홍·나지완 중심타선 시너지

박찬호·이창진 등 신예들 활약

■ KBO 중간순위 (27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53	34	18	1	0.654	0.0
2	두산	54	35	19	0	0.648	0.0
3	NC	52	30	22	0	0.577	4.0
4	키움	55	30	25	0	0.545	5.5
5	LG	52	28	24	0	0.538	6.0
6	삼성	52	23	29	0	0.442	11.0
6	한화	52	23	29	0	0.442	11.0
8	KT	54	22	32	0	0.407	13.0
9	KIA	53	21	31	1	0.404	13.0
10	롯데	53	18	35	0	0.340	16.5

에이스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터너와 월렌드도 연승 기간 선발승을 챙기는 등 선발진에 무게가 더해졌다. 양현종이 또 많은 이닝을 소화하여 '젊은 불펜진'의 부담까지 덜어주면서 마운드 상승세를 이끌었다.

앞선 부진에 고개를 숙였던 양현종은 그

라운드 안팎에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재정비의 중심이 됐다.

반반이 극단적인 시프트에 막혀 속스럽게 돌아오지 못하던 최형우는 뒤늦게 타격에 불을 붙였다.

최형우는 최근 10경기에서 15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이 중 3개는 담장 밖으로 날렸다. 4번 타자를 중심으로 클린업트리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부상과 부진으로 제 몫을 못한 김주찬을 대신해 새로 주장으로 선임된 안치홍의 방향도 가볍게 돌아오고 있다.

중심타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타격 6위'에 빛나는 박찬호 등 신예 선수들도 힘을 받고 있다.

'해줘야 할' 이들의 탈라진 움직임으로 연승가도를 달린 KIA는 마운드의 새로운 별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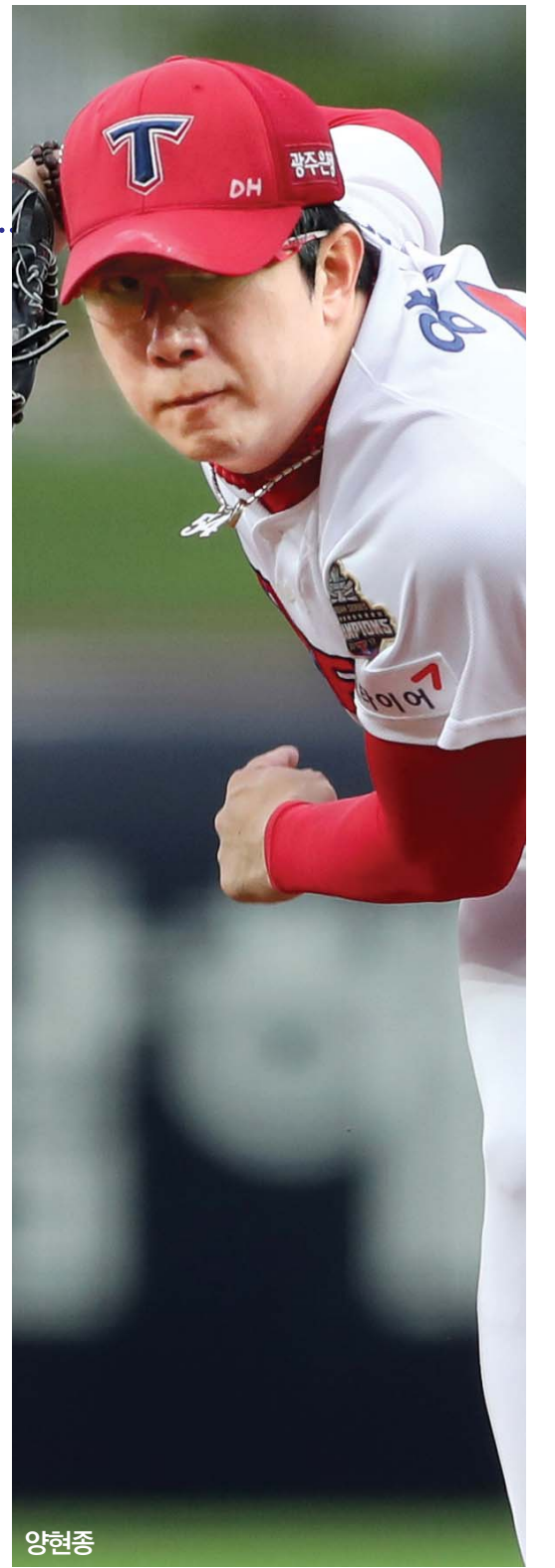
KIA는 마무리 문경찬을 중심으로 하준영, 전상현, 고영창 등 신예 선수들의 씩씩한 피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재활군에서 벗어난 박준표까지 변화무쌍한 공을 앞세워 불펜에 가세하면서 뒷심이 좋아졌다.

하지만 4-5선발에는 아직 확실한 이름을 채우지 못했다.

28일 홍건희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 KIA는 4-5선발로 3경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하위권 싸움이 아닌 중위권 싸움을 해야 하는 상대들과 만남이기도 하다.

홍건희와 차명진이 '가능성'을 넘어 '확실함'을 보여줘야 하는 한 주. 기록 많은 타선도 주말 3연전의 감을 이어 앞선 지독했던 부진을 만회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새 역사 기대해

연승 바람을 탄 KIA 타이거즈가 '기록의 한 주'를 연다.

KIA는 시즌 초반 주축 선수들의 부진 속에 기록 싸움과는 먼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7연승 상승세의 KIA는 뒤늦게 기록 싸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 시즌 히트 상품인 박찬호가 지난 26일 KT전을 통해 규정타석을 채우면서 0.329의

최형우 3000루타 -4

김주찬 1000득점 -2

박찬호 타격 순위싸움

타율로 단숨에 타격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찬호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0차례 도루에도 성공, 도루 부문 10위이기도 하다.

박찬호가 뜨거운 기세를 이어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과 타격 싸움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 지독한 부진으로 자신감을 구겼던 최형우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0.395의 타율로 3홈런 8타점을 만들어낸 최형우는 홈런 공동 1위(10개), 타점 공동 8위(37타점), 장타율 0.515(10위)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뒤늦게 속도를 낸 최형우는 새로운 한 주 3000루타에 도전한다.

최형우는 앞으로 4루타를 더하면 KBO리그 역대 15번째, KIA 소속으로는 2018년 이범호에 이어 두 번째 3000루타 선수가 된다.

명에 회복이 시급한 김주찬은 통산 13번째 1000득점에 4득점을 남겨두고 있다.

김주찬은 지난 2016년에는 97득점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32경기에 나와 119타수 27안타 3볼넷에 머물면서 타율 0.227과 출루율 0.256에 그치고 있다. 득점은 9점.

김주찬이 4차례 더 홈을 밟으면 현역선수로는 4번째(삼성 박한이, LG 박용택, 한화 정근우), KIA 선수로는 2009년 이종범에 이어 2번째 1000득점 선수가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만만찮은’ 남아공

한국, U-20 월드컵 29일 예선 2차전

남아공, 1차전 아르헨티나 예상 밖 선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반드시 승리의 제물로 삼아야 할 팀이다. 하지만 남아공도 절대 잡아먹을 상대는 아니다.

한국 대표팀은 29일 새벽 3시 30분(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티히의 티히 경기장에서 남아공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을 치른다.

두 팀 모두 1패를 안고 마주 선다. 1차전에서 우리나라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포르투갈에 0-1로 패했다. 남아공은 이 대회 최다 우승국(6회)인 아르헨티나에 2-5로 졌다.

이른바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에서 16강 진출을 바라보려면 두 팀 모두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하다. 남아공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해볼 만한 상대이긴 하다. 한국은 U-20 대표팀 간 맞대결에서 남아공에 1승 1무를 기록 중이다.

1997년 대회에서 처음 본선 진출을 이룬 남아공에 이번 대회는 네 번째 FIFA U-20 월드컵 본선무대다.

앞서 2009년 이집트,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역대 대회 최고 성적은 2009년의 16강이다.

이번 대회 첫 경기였던 아르헨티나와 대결에서 남아공은 만만찮은 전력을 보여줬다. 비록 2-5라는 대패를 당했으나 전반까지는 1-1로 맞서는 등 예상 밖의 선전으로 아르헨티나를 당황하게 했다.

남아공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포백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맞붙을 놓았다. 남아공 공격수들은 우리 수비수들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만큼 개인 기량도 갖췄다.

프랑스 AS 모나코 소속의 최전방 공격수로 페널티킥 만회골을 넣은 라일 포스터를 비롯해 처진 스트라이커 루부요 페오, 측면 날개 프로미스 음쿠마와 코바멜로 코디상 등은 160cm대 후반에서 170cm대 중후반으로 키는 크지 않지만 아프리카 선수 특유의 탄력과 스피드를 앞세워 경기 내내 아르헨티나 수비진을 괴롭혔다. /연합뉴스

아버지의 이름으로...케빈 나 PGA 3승

재미교포 나상욱, 찰스 슈와브 챌린지 13언더파 267타 우승

누적 상금 3000만달러 돌파...한국인으로 최경주 이어 두번째

재미교포 케빈 나(36·한국이름 나상욱)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3승 고지에 올랐다.

케빈 나 27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7월 밀리터리 트리뷰트 제패 이후 10개월 만이다.

2010년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두기까지 8년이 걸렸고 두 번째 우승까지는 7년이 걸렸던 케빈 나 3승 고지에 오르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우승 상금 131만4000달러를 받은 케빈 나 3승은 PGA투어 통산 상금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PGA투어 통산 상금 3000만 달러 고지는 34명 밖에 남아있지 못했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로는 최경주(49)에 이어 두번째다.

케빈 나 8살 때인 1991년 미국에 이민, 종교 교인 시절 미국 아마추어 무대를 석권했던 골프 수재였다.

2004년 웰리파잉스쿨에 최연소로 합격해 PGA투어에 발을 디딘 케빈 나 15년 동안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뚜벅뚜벅 소결음으로 PGA투어를 정복했다.

한번도 투어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가

을 잔치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적도 단 한 번뿐이었다. 이번 우승으로 케빈 나 3승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으며 내년 마스터스 등 특급 대회 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2타차 선두에 최종 라운드에 나선 케빈 나 2번홀(파4)에서 1m 버디를 잡아내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4번홀(파3)에서 먼 거리 퍼트를 성공한 케빈 나 10번홀까지 버디 2개에 보기 2개로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2타차 선두를 유지했다.

14번홀(파4)에서 3m 버디 퍼트를 잡아낸 케빈 나 2타차로 따라오던 토니 피나우(미국)가 16번홀(파3)에서 1타를 잃으며 4타차까지 달아나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케빈 나 18번홀(파4)에서 3m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18번홀 그린에서 아내와 딸을 옆에 앉은 케빈 나 3승의 아내 배를 쓰다듬으며 한국말로 "어우~ 우리 아기"라고 소리쳐 웃음을 자아냈다.

승부가 기운 뒤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은 피나우는 2타를 줄여 4타차 준우승(9언더파 271타)을 차지했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2오버파 72타로 부진, 공동8위(5언더파 275타)로 내려앉았다.

이경훈(28)은 공동64위(6오버파 286타), 안병훈(28)은 68위(7오버파 287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재미교포 케빈 나가 2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투어 찰스슈와브챌린지에서 우승한 후 딸 소피아를 안은채 아내 엘리안과 키스하고 있다. /연합뉴스